



제3세대 휴대폰 뜬다 ... 모바일 비즈니스에 주력

일본 NTT도코모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아이모드(i-mode)와 포마(Foma)폰으로 일본 이동통신 시장을 석권했으며, 국내에서도 연 말쯤이면 플래시 기능이 도입된 휴대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들의 개발 프로젝트에도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최근 휴대폰용 플래시 플레이어 상위 버전을 발표한 한국매크로미디어의 이원진 사장을 만나봤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휴대폰으로 확장되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정보를 얼마나 편리하게, 또 감각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원진 한국매크로미디어 사장은 한국인들이 휴대성 및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엔지니어들의 재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모바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매크로미디어는 그래픽 제작툴 ‘플래시’ 소프트웨어로 널리 알려진 업체다. 플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나 애플의 맥 등 어떤 운영체제에서나 가동되면서 압축률이 뛰어나고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웹 전반에 걸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장은 “단순히 커피 원두를 팔던 단계에서 브랜드와 풍부한 커피경험을 전달하는 ‘스타벅스’ 단계로 전이된 것처럼 매크로미디어가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자로 하여금 광고나 메일, 게임 등에서 높아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전을 설명했다.

실제로 매크로미디어 솔루션으로 구현된 온라인 상점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파일 용량이 크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전달력이 뛰어나 반응이 좋다.

더구나 한국매크로미디어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핸드셋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휴대폰용 플래시 플레이어 ‘플래시 라이트 1.1’ 버전을 발표, 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래시 라이트 1.1은 NTT 도코모 505i 핸드셋에 적용된 플래시 라이트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표준인 플래시와 유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SVG-T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재생시켜 주는 플레이어를 제공한다. 또 새로운 스크립트 명령을 통해 개발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전화 걸기, 네트워크 상태 및 배터리 확인 등을 플래시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 이밖에 MP3, PCM, ADPCM, SMAF 등 다양한 오디오 포맷을 지원한다.

이 사장은 “플래시 라이트는 휴대폰의 용량을 고려, 플래시의 중요한 기능만을 집어넣었지만 하드웨어의 발전속도에 비춰보면 플래시의 전 기능을 탑재할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이미 NTT도코모, 소니에릭슨, 심비안, 텍사스인스트루먼트, T-모바일 등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벨웨이브를 등이 이 솔루션을 채택했다. 국내 메이저 휴대폰 메이커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